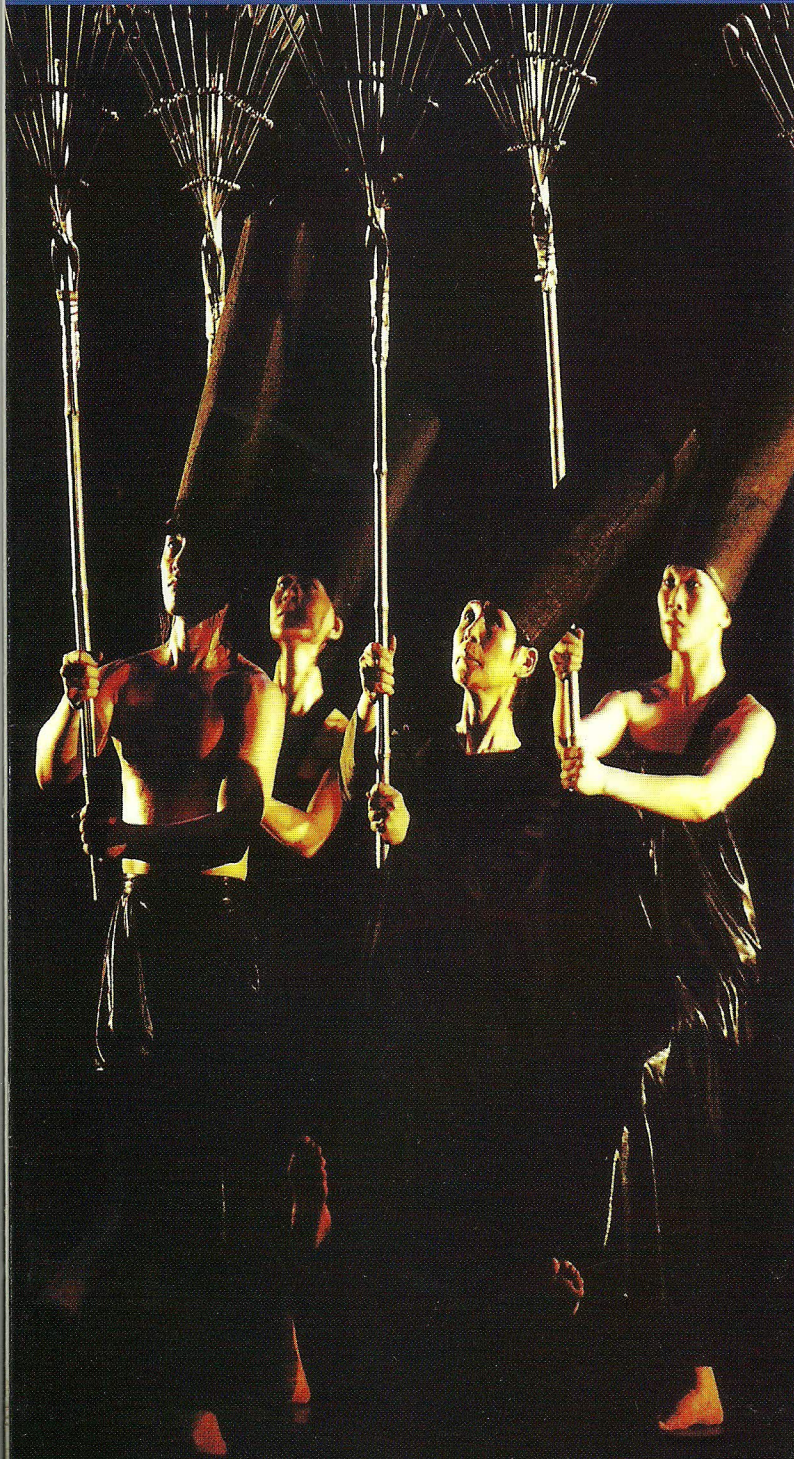


이영희 깨어나기 위한 춤

Lee Young Hee Dance Company

모래주머니 II

Sand Bag II



2002. 6. 26(수) 오후7:3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후원: 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본 공연은 2002년 부산광역시 무대공연 작품 지원금을 일부지원 받아 진행됩니다.



모래주머니 II

Sand Bag II

예전 사람들은 인간은 제멋대로 살면 안되고 도덕과 윤리속에서 진리를 향하여 살아야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항상 정신적 가치가 우선되었다. 그런데 서양의 근대사상은 고립화되고 EGO화되어 이기주의를 대두시켰다. 더욱 자신이 마치 우주의 주인인양 오만한 현대인들은 온갖 물질 · 권력 · 명예 · 감각적 쾌락에 대한 소유욕의 성취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것등 모든 <物質一般>에 대한 견잡을 수 없는 끈질긴 집착이 매개되어 결국 크고 작은 재앙인 고통이란 결과가 따르게 된다.

특히 시간적으로 볼 때 존재와 온갖 물질의 쌓임도 시간의 진행에 따라 마침내 모래처럼 해체되어 흩어져서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누구를 물은 것 없이 태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 반드시 <죽어야>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나아가 그 죽음엔 결코 나의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혼신을 다해 소중히 모아두었던 물질들 그 무엇 하나도 저 세상에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러한 <참>을 자각할 때 우리의 삶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은 고요하여지고 편안하여 환희와 큰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주요작품

實體를 찾아서.
差別이 없음을 보다.
나와 내것으로부터 벗어나다.
삶 그 고통의 끝을 보다.
象이 없음을 보다.
Energy & Feeling등 다수.

대본·안무 : 이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지 도 : 양윤선

음 악 : 인도 민속음악 타브라 연주 편집

무대미술 : 전해원

의 상 : 김태숙

기 획 : 황정옥

무대감독 : 김남식

조 명 : 장훈석

음 향 : 구지혜

출 연 : 박성호, 김영욱, 윤지은, 이유리, 양윤선, 장수임, 오소연, 권정희, 한영주, 박흥기, 신영지, 김옥희, 김경민, 허현주, 강수빈, 이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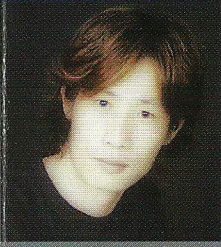
이영희(李榮熙)

그는 1955년 12세에 무용을 시작하였다.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인예술상 무용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제9회 세계 멕시코 올림픽때는 문화공보부가 파견하는 한국민속무용사절단 단원으로 멕시코, 미국, 일본 순회공연에 참가하였다. 그후 인천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를 거쳐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춤의 의미성 없는 동작나열과 인위성을 비판하고 무위적 자연채 개발을 위한 새 감각의 현대 한국춤의 새로운 창작무대를 발표해 왔다. 그는 동양사상에 뿌리를 둔 명상과 기공, 의식의 깨어남을 위한 관찰수행인 Vipassana Meditation 수련을 통해 순수창작작업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작업의도는 소유를 목표로 한 예술행위의 허구성을 부정하며 전통춤 미학과 동양적 원형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또한 그가 항상 관심을 갖는 주제선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 (인간실존, 삶과 죽음, 물질의 존재, 자연과 우주, 인간성 상실, 환경오염)에 대한 제 문제들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제전달을 위한 표현양식은 정적인 명상적 행위로 무위적 몸짓의 초자연성에 접근한 자유로운 형식의 새로운 창안을 항상 강조한다. 뿐만아니라 인성, 대사, 극, 퍼포먼스, 영상을 포함한 과격하고 충격적인 총체예술로서의 신표현주의 경향을 띄기도 한다. 최근에 단독무대인 솔로로 9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문화부 초청으로 FABRIK극장에서 공연 했고 KAIFU 아트 센터에서는 퍼포먼스를 2001년 우크라이나 ODESSA에서는 의식의 깨어남을 인식하기 위한 구도적 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명의 무용수를 등장시키는 우리 마당춤 형식의 극무용 등을 자유롭게 형상화하기 위해 동서양 창조형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탐구하여 현대 한국춤, 기공춤, 선무용등의 새로운 영역을 독창적으로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새암총회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에서 작품을 공연하였다.

LEE YOUNG HEE

She started to learn to dance in 1955. She graduated from the Dance Dept. of the Kyoung-Hee University, and received the M.A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Education in Chung-Ahng University. She won the gold prize of the New Artist Award of Korea in 1968. And she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tour at Maxico, USA, and Japan as a member of the Envoy Group of Korean Folk Dance to the 9th Olympics in Maxico dispatched by the Department of the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n, taking roles as the standing choreographer at the Incheon City Dance company and a lecturer at the universities, she's been criticizing the meaningless cites of motions in dance and the artificiality of dance, and has been announcing the creative stage of the modern Korean dances in new image. She is now concentrating confirming the sense of value about the pure creation activity by means of meditation and chi-gong, based on the oriental ideology, and observing meditation for awakening the consciousness. She tries to negate the fabricity of the activity for possession and firmly sticks to the pattern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She is interested in and chooses the true value of the human, the life and the death, deprivation of humanity, existence of the physical matter, Nature and Univer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he expresses the themes by means of static meditational activity, human voice, speech, play, performance, film, extreme action and her performances have a tendency of radical and shocking neo-expressionism. and she performed a solo performance at FABRIK theater and another performance at KAIFU art center invited by the Department of Culture of the German government. And she researchs oriental and occidental expressing pattern by ocasionally concreting lots of patterns of dance such as theatrical dance assorted as open space dance performed by several tens of dancers. By such efforts She establishes her own unique area in Korean modern dance, Chi-gong dance, meditation dance. Now she is a professor of the dance department, the college of art, Kyoung-Seong University and the art director of Sae-Arm dance company. And she's been performing in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rope, Japan and South-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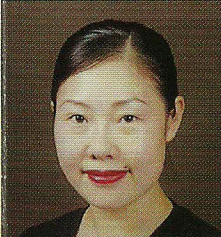
춤꾼들



박 성 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부산시립무용단원



김 영 옥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윤 지 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사
새알춤회 기획



이 유 리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양 윤 선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새알춤회 정단원



장 수 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울산시립무용단원
새알춤회정단원



오 소 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새알춤회 정단원



권 정 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새알춤회 정단원



한 영 주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새알춤회 정단원

경성대 무용학과 재학생

박 신
홍 영
김 옥
김 경
허 현
강 주
기 지
희 민
주 빈

